

재즈를 듣다 - 2 괴물의 케이크워크

글. 이기현 재즈 칼럼니스트

구소련을 대표하는 작곡가 중 한 명인 쇼스타코비치 작품 중 ‘재즈 모음곡’이 있다. 음악을 들어보면 거장의 작품답게 좋긴 하지만 “이게 재즈라고?”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행진곡, 폴카, 왈츠 등 우리에게도 친숙한 유럽 음악 모음이기 때문이다. 우선 오해 하나를 풀고 가야겠다. 모음곡 1번은 1934년, 2번은 1938년에 작곡됐으나 악보가 2차 세계 대전 중 분실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결과 엉뚱한 작품이 재즈 모음곡 2번으로 현재까지도 잘못 알려져 있다. 영화 ‘와이드 아이즈 샷(Wide eyes shot)’에 사용된 왈츠를 포함하고 있는 작품은 ‘여러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Suite for Variety Orchestra)’이지 재즈 모음곡 2번이 아니다. 1번은 왈츠, 폴카, 폭스트롯의 3곡으로 이뤄져 있다. 당연히 왈츠, 폴카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재즈와 거리가 멀고 혹시나 하여 폭스트롯을 들어보면 이마저도 폭스트롯이라기보다 차라리 탱고에 더 가깝다. 비록 2번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지만 어쩌서 1번마저도 재즈 느낌이 없는 것일까?

20세기의 유럽 고전음악 작곡가들은 어떤 식으로든 재즈에 큰 관심을 두고 있었지만, 재즈를 바라보는 시각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을 발견하곤 한다. 예를 들어 스트라빈스키 작품 중 ‘에보니 콘체르토(Ebony Concerto)’는 당시 빅밴드 재즈 리더였던 우디 허먼(Woody Herman)을 위해 만든 것이었다고 하지만, 이 작품도 스윙감 넘치는 빅밴드 재즈와는 거리가 멀다. 재즈에서 비롯된 어떤 아이디어를 자신의 작곡 방식에 차용한 게 아닐까 짐작할 뿐 듀크 엘링턴(Duke Ellington)과 같은 순수 빅밴드 재즈 작곡가와 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유럽 고전음악 작곡가라도 미국 토양에서 성장한 조지 거슈윈(George Gershwin)의 음악은 훨씬 재즈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도 이런 문화적 차이를 드러내는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물며 쇼스타코비치는 구소련 체제하에서 작은 창문으로 재즈를 바라보았을 터이니 초기 재즈 음악을 다양하게 접하진 못했을 것 같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오해가 오히려 상황을 역전 시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아이러니는 역사에서 종종 반복되는 만큼 이 또한 잘못됐다고만 할 순 없을 듯하다.

인상주의 작곡가인 드뷔시 역시 재즈와 관련된 작품을 하나 남겼다. ‘칠드런스 코너’ 마지막 곡인 ‘괴물의 케이크워크(The Golliwog’s Cakewalk)’다. 인상주의 작품답게(?) 처음부터 듣고 있으면 복신의 오후와 같은 노곤함을 느끼며 꾸벅꾸벅 졸다 이 곡에서 잠이 퍼뜩 달아나 버린다. 재즈 향

이 거의 나지 않는 쇼스타코비치 작품과 달리 이 곡은 19세기 말 미대륙에서 큰 인기를 끈 랙타임(Ragtime) 형식을 차용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단언하긴 어렵지만 소련에서 태어나 그 땅에서 죽은 쇼스타코비치에 비해 드뷔시는 세계 각국의 문화를 널리 받아들이는 프랑스의 전통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은 게 아닐까 추측해 본다.

오래전부터 미디(MIDI) 작업을 해오던 분들은 ‘케이크워크’를 시퀀스 작업을 도와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을 듯하다. 본래는 흑인이 거만한 백인을 조롱하듯 흥내 내는 동작에서 기인했다고 알려진 춤이다. 구글 검색을 통해 찾은 유래는 1876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세계박람회에서 열린 댄스 대회 우승자에게 거대한 케이크를 부상으로 준 것이 시초라고 한다. 후에 민스트럴 쇼(Minstrel Show)에 도입돼 인기를 끈다. 국내에선 케이크워크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구하기 어려운 편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잡지, 신문에 실린 조각 기사와 사진을 접하고, 무엇보다 유튜브 덕분에 어렵듯하게나마 감을 잡고 보면 결국 케이크워크 안에도 두 종류가 있는 듯했다. 첫째는 프라이즈 워크(= Prize walks)로 잘 차려입은 남녀가 팔짱을 낀 채 나란히 걷는 게 전부다. 큰 상을 받아 빠기는 태도로 걷는 듯한 모양새 때문에 거만한 백인을 풍자하는 춤이란 말이 나온 듯하다. 둘째는 초크라인 워크(= Chalkline-walk)라는 것으로 프라이즈 워크 도중에 갑자기 한 발을 높이 들어 짱충대는 동작을 하는 경우가 있다. 자료 부족으로 단언할 순

없지만 이 또한 백인을 풍자하려는 목적이라면 혹시 강강춤의 변형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유사한 면이 있다.

약간의 시차가 있긴 하지만 케이크워크에 사용된 음악을 랙타임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다. 랙타임은 아직 재즈가 등장하기 이전 시대의 매우 중요한 장르 중 하나다. 왼손으로 쿵작쿵작하는 리듬을, 오른손으로 싱코페이션이 가미된 선율을 연주하는 방식의 피아노 독주곡이다. 왼손 주법은 행진곡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오른손으로 연주하는 멜로디에 자주 나오는 싱코페이션은 흑인 고유의 뛰어난 박자 감각인 크로스 리듬(Cross-rhythm)을 오해한 결과다. 당시 백인의 귀에는 다층적으로 구성된 크로스 리듬이 싱코페이션으로 단순화돼 들린 것이다. 또한 오선지 악보에 적기 위해서라도 이런 단순화 작업이 필요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특별한 수련을 오래 쌓지 않은 나 같은 보통 사람이 크로스 리듬을 귀로 듣고 정확히 분석해 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클래식 연주자가 화음에 있어서 절대 음감을 가진 경우가 많듯, 크로스 리듬 감각은 몸 안에 메트로놈이 내장된 듯 정확한 시간 간격을 셀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박자의 절대 음감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듯하다.

‘랙타임’이란 의미는 유럽 음악에 비해 싱코페이션이 자주 사용되다 보니 “선율 갖고 장난친다”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이외에 아일랜드에서 유래한 지그 댄스처럼 경쾌한 분위기 때문에 ‘지그 피아노(Zig piano)’, 왼손을 쿵쾅댄다는





랙타임 빅3: 스코트 조플린, 제임스 스코트, 조셉 램
/ 출처: pinterest.co.kr, gaana.com

의미에서 ‘피아노 덤핑(Piano thumping)’이란 용어가 혼용되다 후대에 랙타임으로 굳어졌다.

이 장르가 인기를 끌자 곧 수많은 작곡가가 비슷한 곡들을 쏟아냈지만, 그중 단 한 명을 꼽으라면 ‘스코트 조플린(Scott Joplin)’이다. 1868년 텍사스주에서 철도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운 좋게도 이웃집에 피아노가 있어 이를 갖고 놀았다고 한다. 자식에게 타고난 재능이 있음을 발견한 아버지는 돈을 모아 중고 그랜드 피아노를 사주었고 다른 흑인과 달리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정식 음악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스스로 예술가라는 분명한 자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하고, 좋은 출판업자를 만나 자신의 작품을 정당한 가격으로 계약을 해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았다. 대표작으로 ‘메이플 리프 랙(Maple Leaf Rag)’을 들어야 겠으나, 어린 시절 줄린 눈 비벼가며 ‘주말의 명화’ 또는 ‘토요 명화’를 시청했던 세대라면 영화 ‘스팅(Sting)’의 주제작인 ‘엔터테이너(The Entertainer)’가 훨씬 더 친숙할 것이다. 또 1990년대에 인기를 끈 ‘MBC 퀴즈 아카데미’의 오프닝 음악으로 쓰인 ‘이지 위너스(The Easy Winners)’도 이 사람의 작품이다. 랙타임 작곡가를 더 알고 싶다면 ‘랙타임 빅 쓰리(Ragtime Big 3)’를 기억하면 좋을 듯하다. ‘스코트 조플린’, ‘제임스 스코트(James Scott)’, ‘조셉 램(Joseph Lamb)’이다.

민스트렐 쇼는 랙타임 시기에 미국에서 유행했던 버라이어티 쇼였다. 가장 큰 특징은 블랙페이스(Blackface)가 나온다. 백인이 얼굴을 일부러 검게 칠한 분장을 하고 흑인의 몸짓과 말투를 흉내 낸다. 최초 유성 영화로 알려진 1927년

영화 ‘재즈 싱어(The Jazz Singer)’에도 블랙페이스가 등장한다. 입술 주변을 일부러 우스꽝스럽게 강조한 분장만 봐도 블랙페이스는 명백한 흑인 비하이자 인종차별 행위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회적 약자가 권력자를 비꼬는 것을 풍자라고 하지, 반대의 경우를 풍자라고 하진 않는다. 랙타임에 맞춰 거만한 백인을 풍자하는 춤인 케이크 워크가 민스트렐 쇼에 도입됐다는 것은 대단히 아이러니하다. 이런 태생적 한계로 인해 민스트렐 쇼는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그 자리를 보드빌(Vaudeville)이라는 또 다른 형식이 대체한다. 나는 오랜 세월 민스트렐 쇼와 보드빌 모두 버라이어티쇼라는 점에서 구별을 못 했다. 학자와 같은 엄밀함을 따지지만 앓는다면 결국 블랙페이스의 등장 여부가 둘을 구별하는 가장 간편한 기준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또 하나, 민스트렐에선 슬랩스틱류의 밀도 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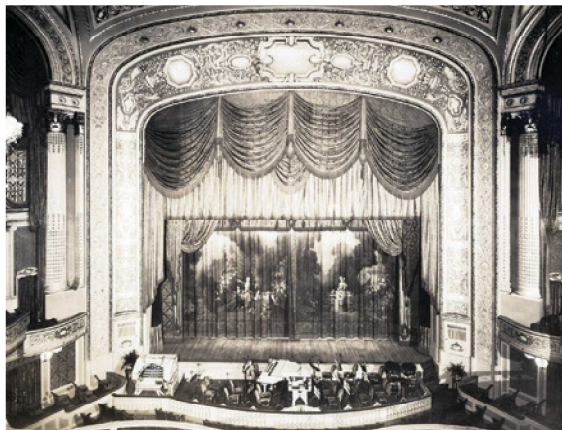
민스트렐 쇼의 포스터 / 출처: wikipedia.org



영화 '제2 상아의 환정면' / 출처 : freerepublic.com

없는 저질 난장판 코미디가 난무하였던 반면, 보드빌은 이런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여 남녀노소가 함께 관람해도 무리가 없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공연이었다. 1933년 원작을 리메이크하여 2005년에 개봉한 영화 '킹콩'에 나오는 쇼 장면이 보드빌을 재연한 것이다. 애당초 킹콩을 납치한 이유도 관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보드빌은 'Vaudeville'이란 철자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 16세기 프랑스에서 등장한 풍자 및 코믹극 형태의 쇼로, 훗날 '오페라 코미크(Opéra comique)'라는 장르로 발전한다. 반면 미국에선 (앞서 말했듯) 민스트럴 쇼를 계승한 독자적인 쇼로 발전하였다. 보드빌에서 공연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매우 재밌다. 우선 초기 무성 영화 스타인 찰리 채플린, 버스터 키튼을 꼽을 수 있다. 밥 호프, 주디 갈란드, 진 켈리, 진저 로저스, 버트 랭캐스터 등등도 보드빌 출신이다. 버라이어티 쇼인 만큼 배우뿐 아니라 가수도 여기에



보드빌 무대 / 출처 : marymiley.wordpress.com

참여했다. 위대한 블루스 가수 베시 스미스(Bessie Smith), 마 레이니(Ma Rainey)도 여기에서 노래하였고, 빅밴드 재즈 리더인 듀크 엘링턴, 이른바 '3대 재즈 보컬' 중 한 명인 엘라 피츠제럴드도 이 무대에 섰다. 이 같은 면면을 보면 보드빌은 한마디로 20세기 미국 문화의 뿌리가 된 거의 모든 요소를 담고 있던 일종의 용광로였던 셈이다.



For Me and My Gal / 출처 : br.pinterest.com



youtu.be/xWryDF_yyHO

토머스 에디슨이 최초 영화를 발명하고 처음 행한 일은 보드빌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었다고 한다. 이 시기 사람들에게 보드빌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일상 중 하나였겠지만, 오늘날엔 각자의 상상 속에서 조금씩 다른 이미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상상을 조금이나마 구체화하는 데에는 옛 흑백 영화를 시청하는 게 큰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1942년에 개봉된 '포 미 앤 마이 갤(For Me and My Gal)'을 추천한다. 우선 보드빌을 상징하는 두 배우 주디 갈란드와 진 켈리가 주연을 맡았을 뿐 아니라, 극영화이긴 하지만 나 같은 후대인의 시각에선 이야기 자체보다는 무대 배경, 배우의 춤과 노래 등에 더 관심이 가 마치 보드빌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다. 오래된 영화라 구하기 어렵다면 두 사람이 '볼링 더 잭(Ballin' the Jack)'을 부르는 장면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 시청하면 좋을 듯하다. 🎬